

건축가의 첫인사



더한옥헤리티지
대표이사

조재현

저는 ‘기술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소명으로 1998년에 IT기업을 창업하고 지금까지 전 세계 90개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IT 1세대 벤처사업가로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며 두 가지를 항상 고민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것,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것을 발굴하고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디지털 세상의 본질입니다. 디지털은 현실을 모방하며 리얼이 아니라 가상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디지털을 다루며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를 느꼈고, 해외 사업차 방문한 유럽의 대도시 주변에 역사와 전통이 잘 보존된 작은 마을에서 편안함과 함께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편안한 물리적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가장 편안한 공간은 집입니다. 그리고 제 기억 속의 집은 한옥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으로서, 인간에게 가장 편안한 집으로서의 한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한옥은 자연과 인간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어우러진 공간으로,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한옥의 요소와 그것을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은 리얼이고 아날로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 속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우리의 것입니다.

한옥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지만, 저는 전통적인 목구조인 한옥이 세계의 어느 나라의 건축양식보다 뛰어나다는 신념과 열정으로 한국의 전통 건축 공법과 미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도 발견했습니다. 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한국의 문화유산인 한옥은 세계의 건축을 능가하는 뛰어난 콘텐츠지만, 진화하지 않고 멈추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옥을 제대로 만들어 그 매력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 한옥이, 미래지향적으로 재창조되어야 한다는 철학으로 더한옥헤리티지를 짓게 되었습니다.





더한옥헤리티지, 한옥을 짓는 여정

저는 아키텍트로서 직접 설계를 배우며, 상상한 공간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본질에 대한 질문과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태양, 바람 등의 자연 요소들을 공부하고 건축 공법, 구조, 소재에 대해 12년 동안 연구 개발하며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전통 건축 방식의 불편함과 문제점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방음, 보온, 난방, 차음이 안되는 것은 한옥의 문제가 아니라 공법의 문제였습니다. 나무를 연구하고, 터를 찾고, 장인을 찾으며 기술개발과 재료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연구하다

한옥은 나무로 지어지지만 나무의 건조 때문에 진화가 멈추어 있었습니다. 한옥 건축에 적합한 목재는 10년 동안 건조해야 하고, 나무를 제대로 건조하지 않고 함수율이 높은 나무를 사용한 한옥들은 문체에 직면했습니다.

장기간의 건조 기간 때문에 대규모 한옥 건축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목의 건조 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는 특수 공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공법을 통해 10년의 건조 기간을 6개월로 줄였으며, 까다롭게 선별한 최고급 목재를 마이크로웨이브 방식으로 건조해 목재 내 수분 함유량인 함수율을 최대치인 15%까지 낮췄습니다. 문화재 복원 시 승인되는 함수율 25%보다 낮아 목재의 변형과 뒤틀림을 방지하고 한옥의 약점인 웃풍과 창문의 어긋남을 보완했습니다.

이를 통해 멈추었던 한옥의 진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수치화된 데이터
기반으로 최고급
대형 원목을
정밀하게 가공



마이크로웨이브 - 건조



동해 나무 적재 보관소 - 자연 건조 중

터를 찾다

한옥에서 집터는 생명의 씨앗을 잉태하는 것처럼 중요합니다.

저는 ‘자연 속 어디에 한옥을 앉힐 것인가’를 화두로 대한민국 전국을 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자연 풍경이 근경, 중경, 원경으로 펼쳐진 천혜의 땅을, 영월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강이 300도로 빙 둘러 휘감아 흐르고, 겹겹이 쌓인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포근한 이곳은 옛말 그대로 ‘배산임수’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땅의 중심은 소나무 숲입니다. 우리는 소나무 숲을 그대로 두어, 바람이 통하는 시그니처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한옥을 설계할 때 소나무 숲이 중심이 되도록 하여 각 계절의 풍경과 바람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수화같이 첩첩이 쌓인 산(원경), 병풍처럼 펼쳐지는 선돌 명승지(중경) 소나무 숲과 한옥이 어울린 자연(근경)을 한눈에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근경, 중경, 원경—

오직 이곳에서만 즐길 수 있습니다.





장인들을 찾아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다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좋은 목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재료와 공법에 대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목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초기에는 대목장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평생 목수 일에 헌신한 분들이라 설계안을 논의할 때 기 싸움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함께 연구하면서 신뢰가 쌓여 이제는 막역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목장들이 직접 목재를 관리합니다. 초석을 놓는 일부터 마지막 기와를 얹는 것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며 작품을 만들겠다는 장인정신으로 한 채씩 짓고 있습니다.

목재를 깎고 다듬어 재목으로 만드는 치목의 시작은
나무 중심에 먹줄을 놓는것부터 시작이다

구워내는 시간과 온도가
만들어 낸 기와 색상





전통에 기술을 융합하여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만들다

한옥은 자연 친화적이지만 불편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외부 소리를 차단하지 못하고, 옷풍이 심하며, 추위에 약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현대적인 기술을 융합해 방음, 보온, 난방, 차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존 창호의 단열과 차음을 보완하기 위해 이중창을 개발했으며, 창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독일의 특수 금속으로 경첩을 만들었습니다. 창과 창호에는 특수 섬유를 사용한 투명 방충망을 설치해 현대적인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한옥 미학의 정수인 차경을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한옥의 서까래와 서까래 사이에 있는 ‘단골막이’를 단열 보강을 위해 ‘단골벽’으로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을 통해 한옥의 불편함과 한계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옥의 비례감과 자연의 빛을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고안된 처마의 각도와 길이





전주 한지의 질감을
그대로 담아 내구성 있는
건축 소재로 활용한 벽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문양과 질감을 그대로 담아
빛을 투과하는 대리석

또한 나무와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재료들을 연구하며, 한옥 건축과 어울리는 인테리어를 직접 설계하고 있습니다. 돌과 나무, 대리석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어 한옥 건축 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한옥은 미학적으로 뛰어나, 어떠한 인테리어도 압도할 만큼의 특유의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를 최소화하고 기능적인 요소는 모두 숨김으로써 한옥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전통 한옥 건축 소재인
돌을 공예적인 물결
질감으로 부드럽게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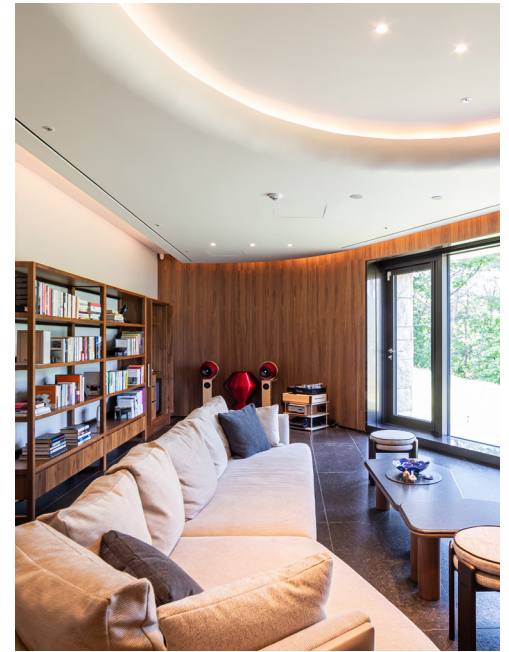
인간에게 가장 편안한 공간

저는 장인들과 함께 인간에게 가장 편안하고 감동적인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한옥헤리티지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 즉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서 출발합니다. 공간의 시작은 자연이지만, 공간의 완성은 사람입니다. 자연이 감싸고 한옥이 감싸며 그 안에 사람이 존재하는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더한옥헤리티지에 방문한 고객 한 분, 한 분의 경험과 온기로 저희의 공간은 완성됩니다.

저는 인간과 자연이 연결되는 이곳에서 의외의 공간을 두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자 했습니다. 침실은 사적인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기존 한옥에는 없었던 대형 다이닝룸, 야외 마당, 미디어룸 등을 통해 서로를 만나고 관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인간이 자연과 연결되는 이곳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따뜻한 환대

저는 더한옥헤리티지에 방문하는 고객분들께 우리를 기다리고 환대하는 집의 경험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형화된 서비스 보다 안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는 애정 어린 마음과 시선으로 고객을 살피고 모십니다. 우리 한옥이 소박하지만 품격있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공간으로 삼국사기 <검이불루 화이불치>가 전하는 우리나라의 미학의 정수를 담고 있듯이, 우리의 Hospitality는 겸손하고 따뜻한 환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편안한 경험은 자연, 공간, 인간의 조화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한옥이 차경을 통해 매 순간 변화하는 자연을 실내에 끌어들었듯 매 순간 변화하는 자연에 따라 변화하는 경험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한 여행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비워내고 채우는 진정한 쉼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천년의 문화적 자산이 될 New Heritage

한옥은 1000년 동안 멈추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옥에서 출발했지만 과거의 한옥을 넘어 새로운 기준과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것도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더한옥헤리티지는 전통 한옥을 혁신하여 새로운 문화유산으로 재탄생시킨 ‘뉴 헤리티지’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뜻을 함께하는 장인들과 함께, 한국의 전통 건축철학과 미학을 기반으로 장인정신, 기술 혁신, 도전을 통해 세계 최고의 예술적, 미학적 가치를 지닌 공간과 경험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한옥헤리티지를 시작으로 뉴욕에도 파리에 도 한옥을 짓고 싶습니다. 1000년의 문화유산인 우리의 전통 한옥을 재창조하여 문화재로 남을 만큼 잘 짓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Architecture로서 세계로 확장되어 우리가 만든 대한민국의 한옥이 세계 곳곳에서 향후 1000년 동안 세계적인 문화적 자산으로 빛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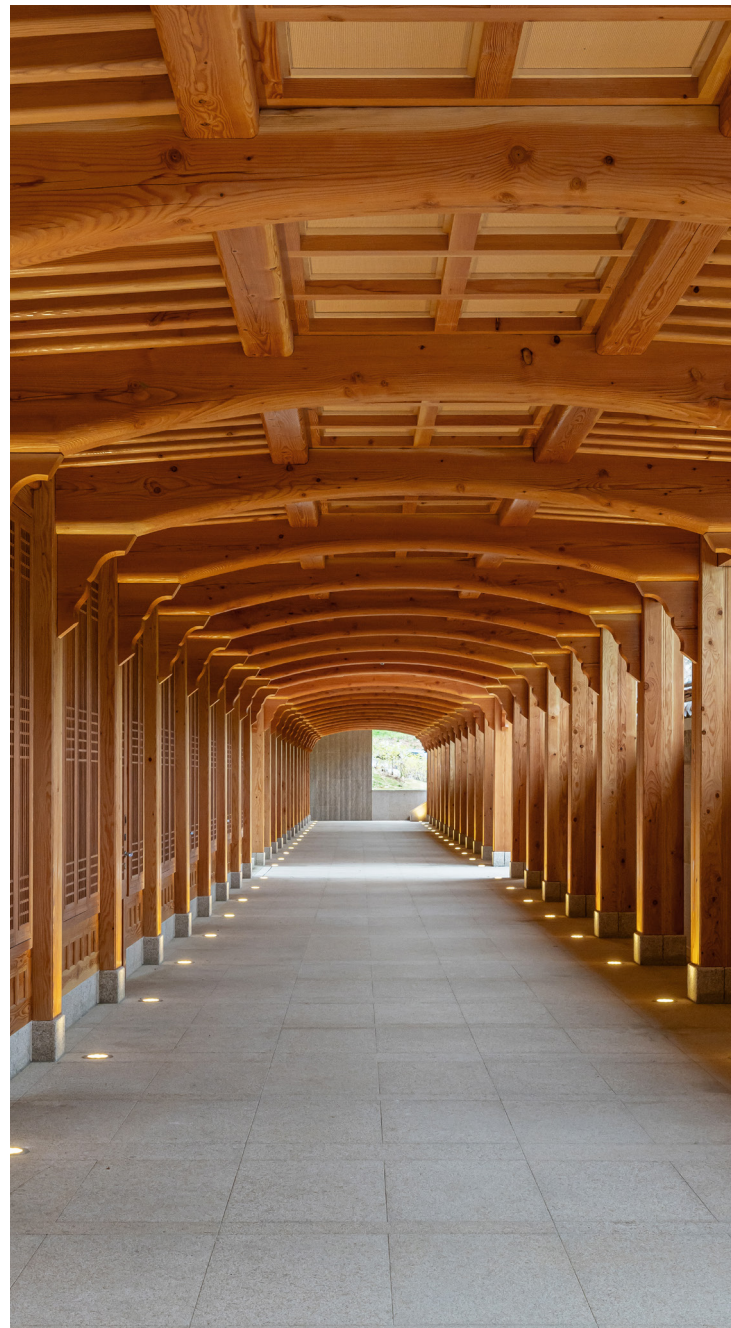














더한옥헤리티지

강원도 영월군 남면 문개실길 37-150
T 033-823-9500 (상담시간 7:00 – 22:00) F 033-823-9191
E thehanokheritage@thehanokheritage.com

📍 thehanok_heritage | www.thehanokheritage.com

